



# 미디어 이용이 신종 감염병에 대한 위험 인식과 예방행동 의도에 미치는 영향

정보 처리 전략의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김활빈** 한림대학교 건강과뉴미디어 연구센터 연구교수\*  
**오현정** 차의과학대학교 의료홍보미디어학과 조교수  
**홍다예** 차의과학대학교 의료홍보미디어학과 학부 4학년  
**심재철**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교수  
**장정현** 차의과학대학교 의료홍보미디어학과 부교수\*\*

이 연구는 개인의 미디어 이용과 정보 처리 전략이 신종 감염병에 대한 위험 인식과 예방 행동 의도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일반 대중은 “미디어 이용(매스미디어 이용, 인터넷 이용: S) → 정보 처리 전략(성찰적 숙고: R) → 심리 상태 변화(위험 인식: O<sub>2</sub>) → 예방행동 의도(R)”의 경로에 따라서 관련 예방행동 의도를 형성한다. 본 연구는 O<sub>1</sub>-S-R-O<sub>2</sub>-R 커뮤니케이션 매개 모델을 적용하여 2000년대 이후 한국 사회에서 큰 위기였던 신종플루의 사례를 2011년 식품의약품안전처 용역 과제에서 수집했던 데이터(N = 1,001 명)를 이용하여 분석했다. 연구 결과 미디어 이용과 예방행동 의도의 관계는 정보 처리 전략과 위험 인식을 통해 매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인이 미디어를 통해 위험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될 때, 정보 처리 전략을 통해서 위험 인식을 하며, 이에 따라 예방행동 의도가 높아졌다. 이 연구는 주로 정치커뮤니케이션 연구에서 사용된 O<sub>1</sub>-S-R-O<sub>2</sub>-R 모델이 감염병 이슈와 같은 건강 관련 분야에서도 유용한 이론임을 밝혔다. 이 점에서 이론적 의의가 있다. 한국 사회에서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미디어를 통한 위험 인식과 예방행동 의도에 대한 실천적 함의를 논의했다.

**KEY WORDS** O<sub>1</sub>-S-R-O<sub>2</sub>-R • 정보 처리 전략 • 감염병 • 위험 인식 • 예방행동 의도

\* ku95bini@gmail.com, 제1저자

\*\* jchang@cha.ac.kr, 교신저자

## 1. 문제 제기

2015년에 이어서 2018년 다시 발생해 언론의 주목을 받았던 중동호흡기증후군(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MERS, 이하 메르스)은 21세기 들어서 한국 사회에서 주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협적인 신종 감염병(emerging infectious disease, EID)이다(심재철, 2015 참조). 한 번 홍역을 겪어서인지, 금년도에 메르스의 의심증상 환자가 양성으로 판정되자 질병관리본부는 현장에서 역학 조사 및 접촉자 조사를 실시하는 등 적절하게 대응했다(질병관리본부, 2018). 이렇듯 긴급을 요하는 감염병이 발생하면 질병관리본부를 포함한 정부는 즉각적으로 보도 자료를 제공하고,<sup>1)</sup> 각종 관련 정보를 웹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한다. 미디어 역시 감염병의 사회적 피해 상황 및 정부의 대응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지난 15년여에 걸쳐 중증급성호흡기감염증(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SARS, 이하 사스), 신종플루(H1N1), 메르스와 같은 신종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통해 정부의 대응 체계와 언론의 위기상황에 대한 보도 관행이 정착되어 가고 있다.

신종 감염병은 지구촌 시대에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닌 국제적인 문제다. 국내에서 사회 이슈가 됐던 메르스, 사스, 신종플루는 모두 감염 의심 환자가 해외에서 국내에 들어오면서 발병된 국제적 문제였다. 감염이라는 속성 때문에 효과적인 예방을 위해서는 개인뿐 아니라 타인에 대한 위생도 중요한 고려 사항이다(김여라, 2010). 신종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그 위험을 인식하고 개인이 자발적으로 그에 따른 예방행동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질병관리본부는 신종 감염병 발생 때마다 마스크 착용하기, 외출 후 손 씻기, 발병 지역에 여행을 자제하기, 타인을 배려한 기침예절 준수 등 개인 차원에서의 감염병 예방 대책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헬스 커뮤니케이션이나 위험 커뮤니케이션 연구에서도 유행하는 감염병에 대한 위험 인식뿐 아니라 개인의 예방행동(의도)을 중요한 변인으로 고려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개인의 인식과 예방행동이 중요하다면 개개인이 신종 감염병을 알아가는 과정은 헬스커뮤니케이션의 중요한 연구 주제가 된다. 과연 신종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사람들은 감염병 발생 정보나 예방행동과 관련된 정보를 어디서 어떻게 얻게 되

---

1) 더 자세한 내용은 질병관리본부 웹페이지([www.cdc.go.kr](http://www.cdc.go.kr)) 참조.

는 걸까? 신종 감염병과 같이 불확실성이 높은 위험 요소에 대하여 대다수 일반인은 미디어를 통해 그 정보를 얻는다(김여라, 2010; 유우현·정용국, 2016; 주영기·유명순, 2016). 특히, 최근에는 모바일 기기의 광범위한 보급으로 미디어 생태계가 변화함에 따라서 사람들은 신문과 방송과 같은 전통적 매스미디어뿐만 아니라 소셜 미디어를 포함한 인터넷을 정보원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Sundar & Nass, 2001). 위험 관련 뉴스뿐만 아니라 일반 건강 관련 정보까지 그 활용 폭도 넓어지고 있다(김선호·김위근, 2017).

매스미디어는 신종 감염병과 같은 잘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질병의 위험을 집중적으로 보도하는 경향을 나타낸다(주영기·유명순, 2016). 이와 같은 현상은 의제 설정의 제로섬 가정(a zero-sum theory of agenda setting)에 따라 이슈들이 서로 경쟁하기 때문에 국내외 언론에서 모두 나타나고 있다(Zhu, 1992). 예를 들어, 1980년대 미국에서는 에이즈 관련 보도가 일반 성인병 관련 보도보다 많았다. 국내에서는 2003년 사스에 대한 보도가 만성 질환인 암에 대한 보도보다 1.5배 정도 더 많았다(주영기·유명순, 2010). 실제 사망자가 훨씬 많은 질환인 암보다 새롭게 등장했던 신종 감염병에 대해서 국내 언론은 더 많은 관심을 보였다. 이와 같이 매스미디어는 2000년대 이후 등장했던 신종 감염병에 대하여 기존의 다른 질환에 비해 더 많이 보도했고, 매스미디어를 주요 정보원으로 이용하는 일반 국민들은 이러한 미디어 보도에 자주 노출되었다.

일반 국민들이 이와 같이 미디어 보도에 자주 노출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첫째, 미디어 이용이 곧바로 사람들의 위험 인식이나 예방행동 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가정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선행 연구들은 이러한 경우는 미디어 효과가 발생하는 과정을 지나치게 단순화시켰다고 비판한다. 사람들이 미디어를 통해 새롭게 얻은 정보를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따라서 그 이후 이어지는 위험 인식과 행동 의도에 미치는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해당 정보에 대하여 각 개인은 자신만의 숙고 과정을 거치고 또한 주변인들과 대화 및 토론을 하면서 해당 위험에 대해 더 위험하다고 인식할 수 있고, 결국 이를 예방하기 위한 행동을 더 하게 된다. 또는 반대의 경우가 나타날 수도 있다. 이러한 정보 처리의 매개 과정을 체계적인 모델로 제시한 것이 O<sub>1</sub>-S-R-O<sub>2</sub>-R 커뮤니케이션 매개 모델이다(김은이, 2013; 유우현·정용국, 2016; 최윤정, 2008; Cho et al., 2009; McLeod, Kosicki, & Pan, 1991; McLeod et al., 2001). 본 연구에서는 최근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신종 감염병들 가운데 신종플루 이슈가 조사된 식품의약품안전처 데이터를 활용하여 이러한 과정을 체계적으로 분석

하고자 한다. 따라서 우리는 매스미디어와 인터넷을 통한 미디어 이용이 정보 처리 전략과 위험 인식을 통해 예방행동 의도에 어떠한 경로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 2. 기존 문헌 검토 및 연구가설

### 1) 위험 인식과 예방행동 의도

위험은 사회적으로 구성된다(김영옥, 2014). 현실을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된다. 즉, 사람들은 특정 위험에 대해 주관적으로 인식하게 된다. 어떤 사람들은 해당 위험을 심각하게 받아들여 예방적 행동에 적극 나서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겨 예방적 행동을 전혀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슬로빅(Slovic, 1987)이 위험 인식을 크게 공포의 정도와 지식 혹은 익숙함의 정도에 따라 그 유형을 나눈 이유다. 특정 위험에 대한 공포를 느끼는 정도와 그것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는 지에 대한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험 인식은 전문가 중심의 위험 판단보다는 일상의 위험 속에서 살고 있는 일반 사람들이 어떻게 그 위험을 인식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김영옥, 2014). 예를 들어 신종 감염병의 경우 미디어가 치사율과 빠른 감염 확산 등에 초점을 두어 보도를 함으로써 그 공포를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거나, 신종이라는 용어가 의미하듯이 새로운 질병, 즉 일상생활에서 익숙하지 않은 질병이라고 인식할 수 있다. 따라서 전문가 집단보다 일반인은 신종 감염병이 유행할 때 이를 더 위험하게 인식했을 것이고, 마스크 쓰기,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지 않기, 손 씻기와 같은 예방적 행동을 더 많이 했을 것이다.

이러한 위험 인식과 예방행동 의도는 신종 감염병 이슈를 포함한 헬스·위험 커뮤니케이션 연구 분야에서 주로 종속 변인으로 사용된다(김여라, 2010; 김옥태·김규찬, 2010; 백혜진, 2018; 유우현·정용국, 2016; Oh, Paek, & Hove, 2015; Yang, 2015). 기존 연구들이 사람들이 신종 감염병과 같은 특정 건강 이슈에 대해서 얼마나 위험하다고 인식하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예방행동 의도에 어떠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해 왔고, 그 대표적인 변인이 미디어 이용이다. 예를 들어, 김여라(2010)는 대학생 460명의 설문 조사를 통해 신종플루에 대한 미디어 이용은 직접적으로 건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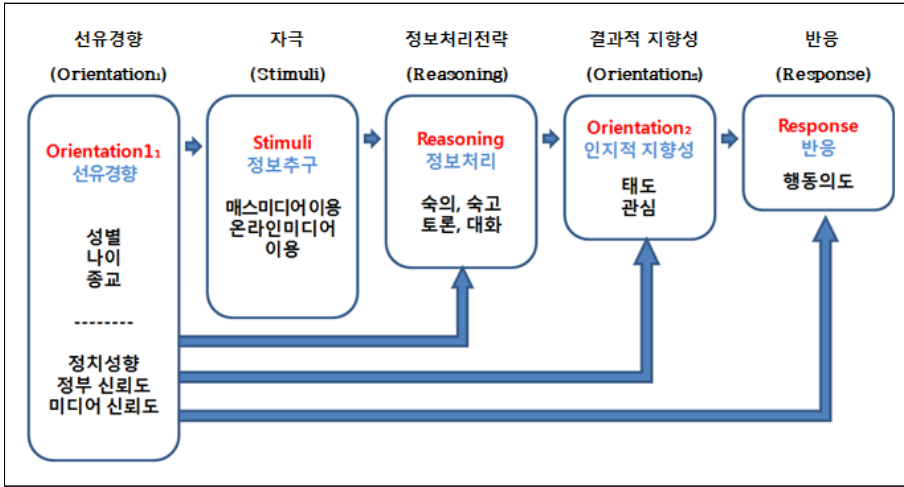
보호 행동 의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개인의 심리적 보호 동기로서 심각성과 취약성, 그리고 대처 효능감과 자기 효능감 같은 매개 변인들에 의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밝혔다. 유우현과 정용국(2016)은 메르스 이슈에 대하여 매스미디어와 예방행동 의도의 관계를 대인 커뮤니케이션이 매개할 수 있는지 검증했다. 특히, 이 연구는 새로운 미디어환경에 따라 대인 커뮤니케이션을 면대면 뿐 아니라 온라인 상황에서의 대인 커뮤니케이션을 추가하여 분석했는데, 연구 결과 매스미디어 노출이 면대면 커뮤니케이션을 매개하여 예방행동 의도를 높여 주었으나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은 그 관계를 매개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양(Yang, 2015)은 미국 동북부 지역의 대학생 390명을 대상으로 신종플루(H1N1) 백신 접종에 대한 행동 의도에 건강 신념 모델(HBM)과 계획된 행동 이론(TPB)에 기반한 변인들을 가지고 그 영향 관계를 통합 모델로 구성하여 검증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매스미디어 이용은 행동 의도에 영향을 끼치지 못했으나, 대인간 토론은 행동 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이에 더하여 매개모형 분석 결과 대인 간 토론은 주관적 규범을 통해 행동 의도를 유의미하게 높여 주었으나, 매스미디어 이용의 효과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와 같이 위험 인식과 예방행동 의도에 대한 미디어 이용 및 개인 간 대화나 토론과 같이 커뮤니케이션 채널의 효과에 대한 연구가 주로 진행되었다.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위험 인식과 예방행동 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모델뿐 아니라 다양한 매개 변인과 조절 변인 또한 함께 검토되어 왔다(김여라, 2010; 백혜진, 2018; Cho et al., 2015). 하지만, 기본적으로 미디어 이용이 위험 인식과 예방행동 의도와와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일 뿐 그 사이에 개인의 정보 처리 전략의 역할에 대한 논의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미디어를 통해 획득한 특정 위험에 대한 정보가 인지적으로 어떻게 처리가 되어서 이후 해당 위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혹은 인식하는지, 그리고 그 이후 예방적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정보 처리 전략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헬스·위험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는 미흡한 실정이다. 다음에서는 이러한 정보 처리 전략의 매개적 역할을 강조하는 모델이 건강 위험 이슈를 어떻게 설명해 낼 수 있는지 논의하도록 하겠다.

## 2) O<sub>1</sub>-S-R-O<sub>2</sub>-R 커뮤니케이션 매개 모델(Communication Mediation Model)

미디어 이용이 직접적으로 위험 인식에 영향을 준다는 가정은 지나치게 단순하다. 사

그림 1. O<sub>1</sub>-S-R-O<sub>2</sub>-R 커뮤니케이션 매개모델 (장정현, 2014, p.54)



사람들이 미디어로부터 정보를 얻는 과정을 연구해 온 커뮤니케이션 연구들은 수용자의 정보 처리 전략과 대인 간 토론이 미디어 이용과 위험 인식 사이에 매개한다고 제시한다(Mcleod et al., 1991; McLeod et al., 2001; Shah, Cho, Eveland, & Kwak, 2005; Shah et al., 2007; Sotirovic, 2001). 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노출 그 자체보다는 정보 처리 전략에서 얼마나 인지적으로 깊이 관여하느냐에 따라서 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수용 정도가 결정된다. 사람들은 단순히 사물을 지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구조, 문화환경, 준거집단, 개인경험 등에 의해서 복합적으로 형성된 ‘총체적 인간’으로서, 자신이 처한 ‘상황적 특성’의 영향까지 고려하며 기존에 알고 있던 것들과 새로운 정보와 경험들을 연관시키는 정교화(elaboration)를 통해 능동적 인지 과정에 참여한다(심재철 외, 1998; Eveland & Dunwoody, 2000; Markus & Zajonc, 1985).

인지적 매개 모델의 제한점은 행동적 반응(R)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주로 인지적 정보 처리 전략이 학습에 미치는 영향을 주로 고려하기 때문에 행동 또는 행동 의도보다는 주로 인지적 산물인 지식을 종속 변인으로 간주한다. 행동적 결과를 설명하려는 현상에 적용하는 데는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자극과 결과 지향성(outcome orientation, O<sub>2</sub>)과 반응 사이의 관계를 좀 더 정교화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Cho et al., 2009). 미디어 매개 모형(communication mediation model)

은 수용자의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자극(S)으로 고려하면서 인구사회학적, 개인 성향, 구조적 요인들이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매개하여 인지적 행동적 결과에 영향을 주는지를 설명한다(McLeod et al., 2001). <그림 1>은 이러한 매개 모형을 도식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미디어 매개 모델은 매스 커뮤니케이션의 효과는 강력하지만 직접적인 것이 아니라 간접적이라고 가정한다. 즉, 매스미디어와 인터넷 이용은 대인 간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수용자들의 행동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Shah et al., 2005). 즉, 사와 그의 동료들(Shah et al., 2005)은 수용자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대인 간 커뮤니케이션이 매스미디어 이용과 행동과의 사이를 매개하는 핵심적인 변인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매스미디어뿐만 아니라 인터넷과 같은 온라인 상황에서도 같은 현상이 발견되기 때문에 온라인에서의 커뮤니케이션 활동은 오프라인 활동을 대체 또는 보완하는 새로운 통로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정보 처리 전략 중 수용자가 정보를 접한 후 기억 속에 남은 단편적인 정보를 모아 그 정보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하거나, 다른 사람과의 개인적 대화를 통해서 그 정보의 의미를 보다 자세하게 알아보는 정보 처리 방법, 일명 '숙고에 의한 통합(reflexive integration)' 과정이 가장 정교화된 정보 처리 전략이며 매스미디어의 효과를 증가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다(Kosicki & McLeod, 1990; Kosicki, McLeod, & Amor, 1988).

$O_1$ -S- $O_2$ -R 커뮤니케이션 매개 모델은 미디어 이용과 숙고 과정, 대인 간 커뮤니케이션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자극(S)으로 간주한다. 이 두 가지 커뮤니케이션 활동이 직접적으로 결과적 지향성( $O_2$ )과 반응(R)에 영향을 준다고 가정한다. 반면, 인지적 매개 모델(cognitive mediation model)은 미디어 이용이 직접 지식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인지적 숙고 과정을 매개하여 지식을 형성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점에서 미디어 이용과 같은 자극(S)과 지식과 같은 결과적 지향성( $O_2$ ) 사이에 또 하나의 단계를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Cho et al., 2009). 예를 들면, 시민 캠페인 모델(citizen and campaign communication model)도 정치적 대화가 캠페인에서 의하여 제공된 정보와 미디어 이용(S)과 정치적 참여와 같은 반응(R) 사이를 매개한다고 주장한다. 조재호 등(Cho et al., 2009)은 기존의  $O_1$ -S- $O_2$ -R 모델의 자극(S)과 결과적 지향성( $O_2$ ) 사이에 새로운 단계인 정보 처리 전략(reasoning) 과정(R)을 포함시킬 것을 제안한다.

수용자의 정보 처리 전략은 수많은 정보 속에서 눈에 띄는 정보를 선택하는 '선별

적 검색(selective scanning)', 특정 주제와 관련된 정보를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집중하는 '능동적 처리(active processing)', 그리고 단편적 정보를 통합하고 대인 간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정교화하는 '숙고적 통합(reflective integration)'의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 바 있다(Kosicki & McLeod, 1990). 그리고 이브랜드, 맥클라우드, 그리고 호로위츠(Eveland, McLeod, & Horowitz, 1998)는 능동적 처리와 숙고적 통합을 "능동적 숙고(active reflection)"로 통합하여 개념화하였는데, 이는 수용자가 미디어 속 정보를 적극적으로 통합하고 숙고하는 내적 처리 과정과 이를 외부적으로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토론하는 정교화의 과정이 상호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 준다.

대인 간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수용자들의 실제적 지식과 인지적 복잡성(cognitive complexity)이 증가되고, 의견의 질(opinion quality)이 향상된다. 즉, 대인 간 커뮤니케이션은 전문적인 개념들의 적절하고 정확한 사용, 개념들 간 논리적 연결, 의견의 일관성이 유지, 추론 과정에 의한 주장 형성 등을 촉진시킨다(Cappella, Price, & Nir, 2002; Kim, Wyatt, & Katz, 1999). 이와 같이 대인 간 커뮤니케이션의 숙의적 장점을 고려할 때, 대인 간 커뮤니케이션은 정보 처리 전략 그 자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정보 처리 전략이 구현되는 중요한 구성 요소가 된다. 결론적으로  $O_1-S-R-O_2-R$  모델은 정치 커뮤니케이션 현상에서 캠페인 정보와 미디어 이용, 인지적 효과, 숙의/숙고 과정 사이를 잘 구분하는 데 유용한 모델이었듯이, 신종 감염병과 같은 건강 관련 위험 인식 형성 과정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본 연구를 통해 검증하고자 한다. 즉, 신종플루와 같이 새롭고 잘 알지 못하는 전문적인 위험 정보를 일반 사람들이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접할 때 수용자인 일반 대중의 미디어 이용과 정보 처리 전략 과정을 통해 어떻게 결과적 지향성인 위험 인식을 형성하고 관련 행동 의도에 영향을 주는지를  $O_1-S-R-O_2-R$  모델을 통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 3) 연구 모델의 구성 및 연구가설

이 연구에서는 위험 커뮤니케이션  $O_1-S-R-O_2-R$  모델이 신종 감염병 발생 시에도 적용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통제 변인으로서 선유 경향, 외생 변인으로서 미디어 이용, 그리고 내생 변인으로서 정보 처리 전략, 위험 인식, 그리고 예방행동 의도를 <표 1>과 같이 모델화했다.

이 연구에서는  $O_1-S-R-O_2-R$  모델을 이용하여 응답자의 미디어 이용이 신종 감



표 1. 위험 커뮤니케이션 O<sub>1</sub>-S-R-O<sub>2</sub>-R 모델과 주요 변인들

통제 변인	외생 변인	내생 변인		
		정보 처리 전략 (Reasoning)	결과적 지향성 (Orientation <sub>2</sub> )	반응 (Response)
선유 경향 (Orientation <sub>1</sub> )	자극 (Stimulus)	정보 처리 전략 (Reasoning)	결과적 지향성 (Orientation <sub>2</sub> )	반응 (Response)
성별, 나이, 교육 수준, 정치적 성향, 전문가 집단 신뢰도	매스미디어 이용 인터넷 이용	정보 처리 전략	위험 인식	예방행동 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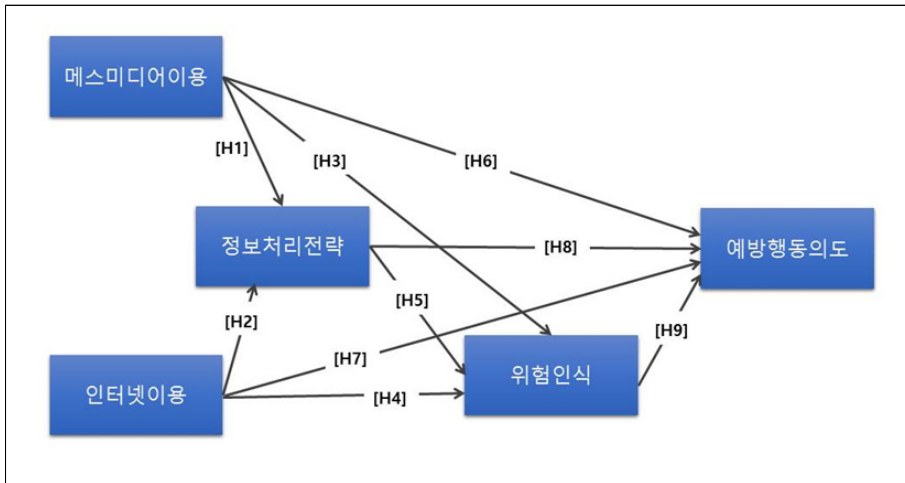
염병으로서 신종플루에 대한 위험 인식과 예방행동 의도를 영향을 끼치는지 분석하기 위한 통합적인 모델로 설정했다. 먼저 이론적으로 가능한 모든 경로를 추정하는 포화 모델(saturated model)이 적합한지 살펴봤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경로는 제거한 최종 모델을 찾아냈다.

먼저 O<sub>1</sub>-S-R-O<sub>2</sub>-R 모델의 첫 번째 단계인 선유 경향(Orientation<sub>1</sub>)으로는 성별, 나이, 교육 수준, 정치 성향, 그리고 전문가 집단에 대한 신뢰도를 고려했다. 기존 연구들에 따르면 전문가 집단에 대한 신뢰도는 위험을 인식하는 데 영향을 주는 휴리스틱 정보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왕재선 · 이현정, 2011; 한동섭 · 김형일, 2011; Brossard & Nisbet, 2007; Scheufele & Lewenstein, 2005; Slovic, 1999). 따라서 선유 경향의 하나로 전문가 집단에 대한 신뢰도를 연구 모델에 포함했다. 다만 선유 경향은 연구 모델에 포함하지 않고 통제 변인으로 활용했다.

모델의 두 번째 단계인 자극(Stimulus)은 미디어 이용으로 설정했다. 인지적 매개 이론, 커뮤니케이션 이론, 그리고 O<sub>1</sub>-S-R-O<sub>2</sub>-R 연구에서 사용된 전통적인 매스미디어 이용과 인터넷 이용으로 나누어 구성했다(Cho et al. 2009; Eveland, 2001; Eveland et al., 2005; Mutz, 2006; Shah et al., 2005).

세 번째 단계인 정보 처리 전략(Reasoning)은 내적인 정보 속고의 과정과 외부적 토의를 통한 정교화의 과정을 포괄적으로 구성했다. 이 과정은 미디어로부터 얻은 정보를 통합(integration)하는 정신적 노력의 과정을 의미하는 것(김은이, 2013; 심재철 외, 1998; 유우현 · 정용국, 2016; Cho et al., 2009; McLeod et al., 2001)으로 습득된 정보를 자신의 경험, 사전 지식, 세계관 등과 연결하는 과정이다. 새로 획득한 정보를 바탕으로 스스로 그 정보의 의미에 대해 심사숙고하여 주위 사람들과 대화에 참여하기 전에 자신의 생각을 일관성 있는 논리로 정리하여 분명하게 표현하려는 개인적 노력이며(Eveland, 2004), 대인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주어진 정보의 의미를 정교화

그림 2. 연구 모델



하고 내면화하는 인지적 과정이다. 이러한 정보 처리 전략은 주로 정치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많이 연구되어 왔지만 최근에는 소비자 행동 분야(강두선 · 손기환, 2014)와 메르스 연구에서도 활용되고 있다(유우현 · 정용국, 201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내적인 숙고와 외적인 소통을 포함한 일련의 성찰적 숙고 과정을 정보 처리 전략으로 포함했다.

네 번째 단계인 결과적 지향성(Orientation<sub>2</sub>)은 다섯 번째 단계인 반응(Response)과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대체로 결과적 지향성은 지식과 같은 인지적 요인과 태도 관련 변인들을 고려하고, 반응에서는 행동이나 행동 의도를 설정해 왔다. 본 연구에서도 개인이 신종 감염병에 대하여 생각하는 위험 인식을 결과적 지향성으로 구성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단계인 반응은 건강 신념 모델과 위험 정보 추구 및 처리 모델에서 밝혀 온 것처럼 위험 인식이 예방행동 의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구성했다. 이상의 논의를 시각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이 <그림 2>에 제시된 연구 모델이다.

이 연구는 제시된 연구 모델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했다.

연구가설 1: 건강 관련 매스미디어 노출은 관련 정보 처리 수준의 유의미한 정적 예측 변인일 것이다.

연구가설 2: 건강 관련 인터넷 콘텐츠에 대한 노출은 관련 정보 처리 수준의 유의미한 정적 예측 변인일 것이다.

연구가설 3: 매스미디어 이용은 위험 인식의 유의미한 정적 예측 변인일 것이다.

연구가설 4: 인터넷 이용은 위험 인식의 유의미한 정적 예측 변인일 것이다.

연구가설 5: 정보 처리 수준은 신종플루 관련 위험 인식의 유의미한 정적 예측 변인일 것이다.

연구가설 6: 매스미디어 이용은 신종플루 관련 예방행동 의도의 유의미한 정적 예측 변인일 것이다.

연구가설 7: 인터넷 이용은 신종플루 관련 예방행동 의도의 유의미한 정적 예측 변인일 것이다.

연구가설 8: 정보 처리 수준은 신종플루 관련 예방행동 의도의 유의미한 정적 예측 변인일 것이다.

연구가설 9: 위험 인식은 예방행동 의도의 유의미한 정적 예측 변인일 것이다.

〈그림 2〉에서 제시되지 못한 정보 처리 전략 및 위험 인식의 매개 효과를 밝히는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연구가설 10: 정보 처리 전략은 매스미디어 이용 및 인터넷 이용과 위험 인식 사이를 유의미하게 매개할 것이다.

연구가설 11: 정보 처리 전략은 매스미디어 이용 및 인터넷 이용과 예방행동 의도 사이를 유의미하게 매개할 것이다.

연구가설 12: 위험 인식은 매스미디어 이용 및 인터넷 이용·정보 처리 전략과 예방행동 의도 사이를 유의미하게 매개할 것이다.

### 3. 연구 방법

#### 1)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는 2차 데이터 분석(secondary data analysis)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연구 과제인 ‘이해관계자 맞춤형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실행 방안 연구’의 설문 조사 자료를 사용했다. 해당 설문 조사는 지난 10년간 한국 사회에서 이슈화되었던 25개 식품과 의

약품을 비롯한 건강 관련 사건에 대한 위해 인식을 조사했다. 본 연구는 이 가운데 신종 감염병으로서 신종플루에 대한 설문 항목을 사용해 분석을 실시했다. 설문 조사는 전문 기관이 수행했고, 설문 대상자는 전국 7대 도시에 거주하는 20대 이상의 성인 남녀로 구성되었다. 조사 회사의 패널 가운데, 인구 현황에 따라 성별, 연령별, 지역별 할당을 통해 표본을 무작위로 추출하는 방법이 사용되어 총 1001명의 표본이 선정되었다. 응답자의 성별은 남성(499명, 49.9%)과 여성(502명, 50.1%)이 절반 정도를 차지했다. 응답자의 평균 연령은 41.5세였으며, 연령별로는 20대 212명(21.2%), 30대 234명(23.4%), 40대 240명(24.0%), 50대 199명(19.9%), 그리고 60대 이상 116명(11.6%)으로 구성되었다. 학력의 경우 중졸 이하 18명(1.8%), 고졸 230명(23.0%), 대학 재학 112명(11.2%), 대학 졸업 이상 568명(56.7%), 그리고 대학원 졸업 이상 73명(7.3%)으로 나타나 온라인 조사 회사 회원 구성의 특성상 응답자 가운데 고학력자가 다소 많았다.

## 2) 주요 변인의 측정

본 연구는 식약청 설문 조사 질문 가운데 예방행동 의도, 건강 관련 미디어 이용, 정교화 과정, 통제 가능성, 위험 인식 및 인구사회학적 변인을 측정하는 문항들을 적절하게 선택하여 활용했다.

### (1) 종속 변인: 예방행동 의도

실제 행동에 옮기 전에 나타나는 인지적 반응으로 태도와 행동 사이를 매개한다는 선행 연구(Ajzen & Fishbein, 1980; Fishbein & Ajzen, 1975)를 바탕으로 신종플루에 의한 위험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질병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반 대중이 예방행동을 실행에 옮기려는 의도를 다음 문항(장정현 · 심재철, 2013)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귀하께서는 다음과 같은 식품 · 의약품, 질병 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에 대하여 “신종 전염병(신종플루 등)이 발생하면 나는 예방접종을 맞는다”, “신종 전염병(신종플루)이 발생하면 나는 손씻기 등을 통해 질병을 예방하고자 노력한다”라는 2개 문항을 7점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1 = 전혀 그렇지 않다, 7 = 매우 그렇다;  $M = 5.46$ ,  $SD = 1.12$ ,  $r = .37$ ,  $p = .001$ ).

## (2) 독립 변인: 건강 관련 매스미디어와 인터넷 이용

미디어 이용은 전통적인 매스미디어 이용과 인터넷 이용으로 구분했다. 먼저 매스미디어 이용은 신문, TV, 라디오 등 3개 매스미디어 이용을, 그리고 인터넷 이용은 인터넷 신문, 온라인 게시판, SNS 등 3개 인터넷 미디어 이용을 포함했다. 각각의 미디어 이용은 미디어에 대한 노출(exposure)과 집중(attention)으로 나누어 질문을 구성했다(Chang et al., 2018). “귀하께서는 아래 매체를 통해서 식품의약품 관련된 이슈를 얼마나 접하십니까?”와 “귀하께서는 아래 매체를 통해 접한 식품의약품 관련 기사를 얼마나 집중해서 읽으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11점 척도(0 = 전혀 접하지 않는다/전혀 집중하지 않는다, 10 = 매우 자주 접한다/매우 집중해서 읽는다)로 측정했다(매스미디어  $M = 5.51$ ,  $SD = 1.43$ ,  $\alpha = .78$ ; 인터넷  $M = 5.64$ ,  $SD = 1.80$ ,  $\alpha = .88$ ).

## (3) 매개 변인: 정보 처리 전략 및 위험 인식

매스미디어와 인터넷 미디어가 제공하는 정보를 대중이 어떻게 자신의 방식으로 주어진 정보를 분류하고 재구성하여 이해하는가는 정보 처리 전략에 의해 결정된다(심재철 외, 1998; 최윤정, 2008; Cho et al., 2009)는 선행 연구를 참고하여 다음 문항들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귀하는 신종플루에 대해 주변 사람들과 얼마나 토론하셨습니까?”는 7점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했고(1 = 전혀 토론 안 함, 7 = 매우 많이 토론함), “식품·의약품 관련 기사를 통해 알게 된 사실에 대해 다른 사람과 토의한다”, “식품·의약품 관련 정보를 언론에서 접했을 때 그것이 무엇인지 차후에 곰곰이 생각해 본다”, “식품·의약품에 관련된 내용을 다른 매체나 일상생활에서 더 찾아본다”는 11점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0 = 전혀 아님, 10 = 전적 동의;  $M = 5.75$ ,  $SD = 1.46$ ,  $\alpha = .79$ ).

위험 인식은 사람들의 자신과 타인에 대한 주관적 위험에 대한 인식과 위험의 의학적 결과뿐만 아니라 사회, 미래 세대 등에 미칠 수 있는 결과까지를 포함한다(Janz & Becker, 1984)는 선행 연구를 참고하여 다음 문항들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귀하께서는 신종 플루에 의해 발생 가능한 위해가 본인에게 얼마나 위험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귀하께서는 신종플루에 의해 발생 가능한 위해가 귀하를 제외한 다른 일반인들에게 얼마나 위험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귀하께서는 신종플루에 의해 발생 가능한 위해가 귀하의 후손들에게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와 같이 3개 문항을 7점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했다(1 =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7 = 매우 영향을 미친다;  $M = 5.47$ ,  $SD = 1.01$ ,  $\alpha = .70$ )

#### (4) 통제 변인: 성별, 나이, 학력, 정치적 성향, 과학 전문가 집단에 대한 신뢰도

성별(50.1% 여성), 나이, 학력(64% 대학 이상 학력) 등 세 가지 인구사회학적 변인들과 정치적 성향(1 = 보수적, 10 = 진보적;  $M = 2.02$ ,  $SD = .57$ )을 통제 변인으로 사용했다. 또한 과학자나 과학 기관, 정부 기관 등 과학 분야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전문가 또는 기관에 대한 신뢰도는 수용자들이 과학적 논쟁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도 판단을 내릴 수 있게 하는 정보 단서(information shortcut)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선행 연구(한동섭 · 김형일, 2011; Flynn et al., 1992)의 관점에서 다음 문항을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했다: “식품 · 의약품 사과가 발생했을 때 다음 정보원에 대한 신뢰 정도를 표시해 주십시오: 과학자, 의료 전문가, 관련 정부 기관”(1 =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5 = 매우 신뢰한다;  $M = 3.08$ ,  $SD = 0.71$ ,  $\alpha = .72$ ).

## 4. 연구 결과

### 1) 연구 모델 검증

본 연구는 AMOS 23을 사용하여 구조방정식 모델을 구성하고 분석했다. 분석 시 연령, 나이, 학력과 같은 인구통계학적 변인들과 수용자의 구조적, 문화적, 동기적 특징을 설명하는  $O_1$ -S-R- $O_2$ -R 모델의 첫 번째  $O_1$ 에 해당하는 정치적 성향과 전문가 신뢰도와 같은 변인들을 통제했다. 먼저, 포화 모델(saturated model)의 적합도( $\chi^2 = 974.87$ ,  $p < .00$ , SRMR = .81, RMSEA = .144, CFI = 1.000, AGFI = .773, TLI = .814)를 추정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경로를 지워 가며 모델을 정리하며 가장 데이터와 가장 적합하게 나오는 모델을 도출했다. 모델 적합도의 평가에서는 선행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SRMR은 .08 이하, RMSEA는 .06 이하, CFI, CFI, TLI는 .90 이상을 좋은 모델 적합도를 갖는 기준으로 사용했다(Browne & Cudeck, 1993; Hu & Bentler, 1999). 이러한 기준으로 본 연구의 모델 적합도를 살펴보면 최종 수정 모델이 데이터에 매우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chi^2 = 16.34$ ,  $p > .05$ , SRMR = .01, RMSEA = .013, CFI = .997, AGFI = .987, TLI = .992).

## 2) 통제 변인의 효과

통제 변인들이 외생 변인과 내생 변인에 미치는 영향은 <표 2>와 같다. 나이가 적을수록 인터넷 이용( $\beta = -.100, p < .01$ )을 많이 하는 반면, 나이가 많을수록 매스미디어 이용( $\beta = -.194, p < .001$ )을 많이 하고, 정보 처리( $\beta = .078, p < .05$ )에 적극적이었으며 예방행동 의도( $\beta = -.130, p < .001$ )가 높았다. 여성들이 위험 인식( $\beta = .081, p < .05$ )을 많이 느끼고 예방행동 의도( $\beta = .088, p < .01$ )도 높게 나타났다.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인터넷 이용( $\beta = .058, p < .05$ )을 많이 하고 있었으며 진보적인 정치 성향을 가진 사람일수록 인터넷 이용( $\beta = .124, p < .001$ )을 많이 하고 정보 처리( $\beta = .063, p < .05$ )도 적극적이었다. 또한 전문가에 대한 신뢰도가 높을수록 인터넷( $\beta = .097, p < .01$ )과 매스미디어( $\beta = .265, p < .001$ )를 많이 이용하고 적극적으로 정보 처리( $\beta = .094, p < .01$ )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통제 변인들의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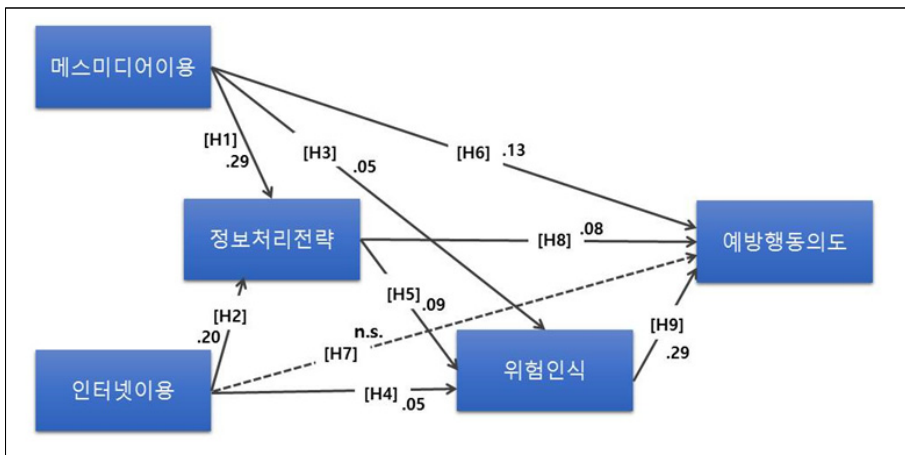
	경로계수 $\beta$	S.E.	$p$
나이 → 인터넷 이용	-.100	.004	.002
나이 → 매스미디어 이용	.194	.003	.000
나이 → 정보처리 전략	.078	.003	.009
나이 → 예방행동 의도	.130	.003	.000
성별 → 위험 인식	.081	.062	.009
성별 → 예방행동 의도	.088	.065	.002
교육수준 → 인터넷 이용	.058	.053	.043
정치적 성향 → 인터넷 이용	.124	.092	.000
정치적 성향 → 정보 처리 전략	.063	.074	.029
신뢰도 → 인터넷 이용	.097	.080	.002
신뢰도 → 매스미디어 이용	.265	.060	.000
신뢰도 → 정보 처리 전략	.094	.061	.001

### 3) 연구가설 검증

연구모형을 살펴보면(〈그림 3〉 참조), 매스미디어 이용( $\beta = .29, p < .001$ )과 인터넷 이용( $\beta = .20, p < .001$ )은 정보 처리 전략에 유의미하게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연구가설 1〉과 〈연구가설 2〉가 채택되었다. 또한 내생 변인인 위험 인식에 매스미디어 이용( $\beta = .05, p < .05$ ), 인터넷 이용( $\beta = .05, p < .01$ ), 정보 처리 전략( $\beta = .09, p < .001$ )은 모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서, 〈연구가설 3〉과 〈연구가설 4〉 그리고 〈연구가설 5〉는 채택되었다. 한편, 선행 연구의 결과와는 달리 외생 변인인 인터넷 이용( $\beta = -.02, n.s.$ )은 예방행동 의도에 직접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서, 〈연구가설 7〉은 기각되었다. 반면, 매스미디어 이용( $\beta = .13, p < .001$ ), 정보 처리 전략( $\beta = .08, p < .001$ ), 위험 인식( $\beta = .29, p < .001$ ) 모두 예방행동 의도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연구가설 6〉, 〈연구가설 8〉, 〈연구가설 9〉는 모두 채택되었다. 〈표 3〉은 이상의 경로 분석 결과를 보여 준다.

매스미디어 이용, 인터넷 이용, 정보 처리 전략이 정보 처리 전략과 위험 인식을 매개하여 위험 인식과 예방행동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소벨(Sobel) 검증을 통하여 매개 효과 분석을 했다. 〈표 4〉에 제시된 정보 처리 전략의 매개 효과 분석을 살펴보면 정보 처리 전략의 매개 효과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

그림 3. 경로 분석 결과





다. 즉, 인터넷 이용(매개 효과 계수 = .033,  $p < .001$ )과 매스미디어 이용(매개 효과 계수 = .031,  $p < .001$ )은 정보 처리 전략을 매개하여 위험 인식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 이용(매개 효과 계수 = .027,  $p < .001$ )과 매스미디어 이용(매개 효과 계수 = .025,  $p < .001$ )은 정보처리 전략을 매

표 3. 경로 분석 결과

	경로계수( $\beta$ )	S.E.	$p$	결과
매스미디어 이용 → 정보 처리 전략	.244	.033	.000	연구가설 1 채택
인터넷 이용 → 정보 처리 전략	.259	.025	.000	연구가설 2 채택
매스미디어 이용 → 위험 인식	.076	.024	.027	연구가설 3 채택
인터넷 이용 → 위험 인식	.098	.019	.004	연구가설 4 채택
정보 처리 전략 → 위험 인식	.126	.024	.000	연구가설 5 채택
매스미디어 이용 → 예방행동 의도	.148	.025	.000	연구가설 6 채택
인터넷 이용 → 예방행동 의도	-.008	.020	.796	연구가설 7 기각
정보 처리 전략 → 예방행동 의도	.103	.024	.001	연구가설 8 채택
위험 인식 → 예방행동 의도	.253	.033	.000	연구가설 9 채택

표 4. 정보 처리 전략의 매개 효과

경로	매개 효과 값 ( $\beta$ )	소벨 값 ( $Z$ )	$p$	결과
인터넷 → 정보 처리 전략 → 위험 인식	.033	4.683	.000	연구가설 10 채택
매스미디어 → 정보 처리 전략 → 위험 인식	.031	4.281	.000	
인터넷 → 정보 처리 전략 → 예방행동 의도	.027	3.965	.000	연구가설 11 채택
매스미디어 → 정보 처리 전략 → 예방행동 의도	.025	3.712	.000	

표 5. 위험 인식의 매개 효과

경로	매개 효과 값 ( $\beta$ )	소벨 값 ( $Z$ )	$p$	결과
매스미디어 → 위험 인식 → 예방행동 의도	.019	2.927	.003	연구가설 12 채택
정보 처리 전략 → 위험 인식 → 예방행동 의도	.032	4.331	.000	
인터넷 → 위험 인식 → 예방행동 의도	.025	4.280	.000	

개하여 예방행동 의도를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따라서 <연구가설 10> 과 <연구가설 11> 은 채택되었다.

<표 5> 에 제시된 위험 인식의 매개 효과 분석을 살펴보면, 매스미디어 이용(매개 효과 계수 = .019,  $p < .005$ )이 많을수록, 정보 처리 전략(매개 효과 계수 = .032,  $p < .001$ )을 많이 할수록, 인터넷 이용(매개 효과 계수 = .025,  $p < .001$ )을 많이 할수록 위험 인식을 매개하여 예방행동 의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연구가설 12> 도 채택되었다.

## 5. 논의 및 연구의 한계

### 1) 연구 결과의 요약

본 연구는 2011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연구 과제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응답자들의 커뮤니케이션 활동과 위험 인식 및 예방행동 의도와와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특히, 매스미디어와 인터넷을 통해 얻은 정보가 어떠한 정보 처리 전략을 거쳐서 국민들의 위험 인식에 영향을 미치고 어떻게 예방행동 의도와 연결되는지 탐색해 보고자 했다.

O<sub>1</sub>-S-O<sub>2</sub>-R 모델을 적용시켜 분석한 결과 사람들의 신종플루에 대한 예방행동 의도 형성에 매스미디어 이용은 직접적 영향을 미쳤으나 인터넷 이용은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못했음을 밝혀냈다. 하지만 위험 인식에 미치는 효과를 보면 매스미디어와 인터넷 이용은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중요한 연구 결과는 매스미디어와 인터넷을 통해 접한 정보는 사람들의 정보 처리 전략을 통해 매개되어 간접적으로 위험 인식과 예방행동 의도 모두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확인한 것이다. 즉, 신종플루에 대한 정보를 미디어를 통해 접한 이후에 이를 곰곰이 생각해 보고 다른 정보를 더 찾아보며 다른 사람들과 대화와 토론을 하는 정교화 혹은 숙고 과정을 거치게 되면, 신종플루에 대한 위험을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백신 접종과 손 씻기와 같은 예방적 행동을 더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정보 처리 전략의 매개 효과는 미디어 이용과 위험 인식 사이의 관계에서 발견되었을 뿐 아니라, 위험 인식과 함께 미디어 이용과 예방행동 의도 사이의 관계에서도 발견되었다. 이때 미디어 이용은 매스미디어 이용과 인터넷 이용을 각각 포함하는 것으로 만약 모델에서 정보 처리 전략 과정을 생

략하게 될 경우 인터넷 미디어 이용의 역할을 과소평가할 수 있게 되는 오류에 빠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 결과는 의의를 가진다. 또한 정보 처리 전략이 미디어와 위험 인식 및 예방행동 의도 사이의 관계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매개해 주는 과정을 잘 드러나게 해 주어 복잡할 수 있는 위험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보다 명확하게 설명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2) 연구 결과에 대한 논의

첫째,  $O_1$ -S- $O_2$ -R 모델은 한국 사회에서 신종 감염병 이슈에 대한 위험 인식 형성 과정을 설명하는 데 유용한 이론적 틀임이 확인되었다. 위험 인식은 선유 경향(성별, 연령, 교육, 정치 성향, 신뢰) → 미디어 이용(매스미디어 이용과 인터넷 이용) → 정보 처리 전략(정교화 과정 및 대인 간 토론) 과정을 통해 형성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형성된 위험 인식을 통하여 예방행동 의도가 생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미디어 이용과 정보 처리 전략은 선유 경향( $O_1$ )과 위험 인식(결과적 지향성,  $O_2$ ) 사이를 유의미하게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결과는 지금까지 위험 인식에 대한 심리 측정 모델에서 결여되었던 미디어 이용과 건강 관련 정보 처리 전략의 효과를 밝혔다는 점에서 이론적으로 기여하는 바가 있다고 사료된다.

둘째, 위험의 사회적 증폭 프레임(Social Amplification of Risk Framework: SARF)에서 개인 스테이션(individual station)이 위험을 사회적으로 증폭시키기도 하고 감소시키기도 한다고 주장했지만 지금까지 개인적 차원에서 위험과 관련된 정보가 어떻게 증폭되고 감소되는지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부족했다. 본 연구는 위험의 사회적 증폭 프레임을 직접 검증하지는 않았지만 정보 처리 전략을 통하여 수용자들이 위험 사건을 해석하고 반응하는 과정에 대한 이해의 지평을 넓혀주는 데 기여할 것이다.

셋째, 인터넷 이용이 예방행동 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은 관찰되지 않았지만(〈연구 가설 7〉 기각), 매스미디어 이용은 예방행동 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스미디어를 통하여 관련 정보를 자주 접할수록 예방행동을 할 의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인터넷에서 얻는 정보의 경우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인터넷 이용은 인터넷 신문뿐 아니라, 온라인 게시판과 SNS 이용도 모두 포함했다. 신문, 방송, 라디오와 같은 매스미디어 정보와 비교했을 때 온라인 게시판과 SNS를 통해 얻은 정보는 그 신뢰성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즉, 정보원의 신뢰성

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인터넷을 통해 많은 정보를 신속하게 얻을 수 있고,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스스로 찾아서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정보의 신뢰성이나 권위 같은 측면에서 의심을 받는다면 위험 인식 형성에는 영향을 미쳤을지 모르지만, 실제 행동의 차원에까지는 이르지 못할 수 있는 것으로 추론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정보 처리 전략(정교화 과정, 대인 간 커뮤니케이션)은 미디어 이용과 위험 인식 사이를 유의미하게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O-S-O-R 이론(Marcus & Zajonc, 1985)의 자극(S) 단계를 미디어 이용과 미디어로부터 습득된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으로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O<sub>1</sub>-S-R-O<sub>2</sub>-R 모델의 주장(Cho et al, 2009; Shah et al., 2007)을 헬스·위험 커뮤니케이션 맥락에서 실증적으로 입증했다. 단순히 미디어 이용보다는 미디어를 통하여 습득한 정보를 대인 간 처리(interpersonal mediation) 과정을 통해 결과적 지향성(O<sub>2</sub>)인 위험 인식을 형성하는 데 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지금까지 위험 인식 또는 위험 커뮤니케이션 연구에서 감정의 휴리스틱 효과(Lee, Scheufele, & Lewenstein, 2005; Slovic, 1987, 1999, 2007; Slovic, Finucane, Peters, & MacGregor, 2004; Slovic & Peters, 2006; Slovic, Peters, Finucane, & MacGregor., 2005) 또는 단축 정보(Kim et al., 2013)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는데 본 연구는 단축정보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일반대중들의 미디어 이용과 정보 처리 전략이 위험 인식 및 예방행동 의도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입증하였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발견이라고 판단된다. 특히 신종 감염병의 경우 수용자들이 그 위험성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미디어의 휴리스틱 효과보다는 미디어 노출 후 정보 처리 전략 과정을 거쳐 위험 인식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위험 인식의 휴리스틱적 성격으로 인하여 미디어 이용을 통하여 건강 관련 정보를 얻었을 때 위험 인식이 바로 형성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즉, 미디어 이용으로 형성된 위험 인식이 선행한 다음 이후 정보 처리 전략 과정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후속 연구들이 미디어 이용 다음에 위험 인식을 위치시키고 그 다음에 정보 처리 전략을 놓는 대안적 모델을 구성하여 비교·검증해 주길 기대한다.

다섯째, 본 연구의 정보 처리 전략은 개인의 정교화 과정 혹은 성찰적 숙고 과정에 더해 대인 간 정보 처리 과정인 대인 간 토론(interpersonal discussion)으로 구성되는 것을 가정했다. 이때 대인간 토론 혹은 대인 커뮤니케이션은 일반 대중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커뮤니케이션 현상이지 여론 지도층과 일반 대중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커

커뮤니케이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신종 감염병 이슈가 전문적인 내용을 다루는 것이긴 하지만 일반 대중이 전문가 집단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동료들과의 일상적인 대화를 통해서 건강 정보가 처리된다는 것은 헬스 커뮤니케이션 연구에서 합의하는 바가 크다. 이점을 고려하면 위기 커뮤니케이션 연구에서 일반 대중의 일상 대화의 중요성은 쉽게 자각된다. 즉, 과학커뮤니케이션 연구에서 사회 속의 과학(science in society)에 초점을 두듯이 헬스 커뮤니케이션 연구도 사회 속에서 헬스 커뮤니케이션(health communication in society)의 효과를 파악하는 것이 점점 중요해질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개인의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의 특징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Cho et al., 2009).

여섯째, 위험 인식이 예방행동 의도의 중요한 선행 변인임이 관찰되었다. 건강 신념 이론(HBM), 위험 정보 추구 및 처리(RISP), 보호 동기 이론(PMT) 계열의 선행 연구들에서 위험 인식이 예방행동 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는 것이 입증되어 왔다. 본 연구 결과도 이러한 선행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었다. 특히, 감염병 관련 건강 이슈에서도 미디어 이용, 정보 처리 전략과 예방행동 의도 사이를 위험 인식이 매개한다는 것은 행동 의도 설명에 있어서 태도 또는 주관적 인식이 중요한 선행 변인라는 것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위험 인식과 행동 의도와의 관계를 연구하는 이론의 견고함(robustness)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고 판단된다.

### 3)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 제안

본 연구는  $O_1$ -S-R- $O_2$ -R 모델을 이용한 선행 연구들과 같이 기본 연구 모델에서  $O_1$ 에 해당하는 수용자들의 선유 경향을 통제 변인으로 활용하고 연구 모델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이는  $O_1$ -S-R- $O_2$ -R 모델이 정보 처리 전략이 미디어 이용과 지식, 태도 및 행동 의도 사이를 매개하는 효과를 밝히는 데 초점을 두었기 때문이지만 후속 연구에서는  $O_1$ 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선유 경향 중 정치적 성향과 신뢰도만을 포함하였고 이슈의 관여도와 사회적 상황 인식 등을 반영하지 못했다. 수용자들은 선택적 경향성을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과학 이슈에 대한 위험 인식 및 예방행동 의도 형성 과정에서 개인의 이슈 관여도와 이슈의 사회적·정치적 환경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헬스 커뮤니케이션 연구에서 일반 대중의 건강 및 과학 지식이나 태도뿐만 아니라 커뮤니케이션 참여자들의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맥락(상황)에 대한 이해를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회 속 건강 담론 또는 헬스 커뮤니케이션 상황 모델(health communication contextual model)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정보 처리 전략에서 중요한 요소인 개인적 처리(intrapersonal mediation: 정교화 과정 혹은 성찰적 숙고) 과정과 대인 커뮤니케이션을 하나의 변인으로 재구성했기 때문에 개인적 처리와 대인 커뮤니케이션이 각각 모델 과정 속에서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검증하지 않았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정보 처리 전략의 영향력을 보다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하여 개인적 처리에 해당하는 정교화 과정에 대한 변인들과 대인 커뮤니케이션 변인들을 개발하여 적용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정보 처리 전략이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숙의(rational and logical deliberation)에만 한정하는 것은 아님을 밝혀 두고자 한다. 즉, 본 연구에서 성찰적 숙고는 정보 추론 과정(information reasoning)의 깊이(depth)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성적인 것뿐만 아니라 감정적이고 습관적인 추론 과정(emotional and habitual reasoning)까지를 포함한다. 즉, 일반 대중의 일상생활에서의 정보 처리 전략에는 사려 깊음, 평등한 상호관계, 불편부당성을 반드시 전제하는 것은 아니라 감정적인 면과 이성적인 면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정보 처리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Cho et al., 2009; Marcus, 2002). 따라서 본 연구에서 선행 연구에서 중요하게 취급된 감정이 포함되지 않았지만 감정의 영향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후속 연구에서는 위험 인식의 중요한 감정으로 다루어온 두려움(fear or dreadfulness)을 변인으로 함께 고려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본 연구는 2011년에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이 실시되었다. 하지만, 미디어 환경은 급속도로 변하고 있어서 지금의 미디어 사용 행태와 차이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모바일 기기로서 스마트폰 사용이 2010년 전후에 시작되었고, 현재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점은 반드시 지적되어야 한다. 기존 매스미디어와 데스크톱 PC를 이용하여 정보를 얻는 것과 비교하여 스마트폰의 각종 앱을 통하여 정보를 얻는 것은 위험 인식이나 예방행동 의도에 끼칠 수 있는 영향 측면에서 분명 차이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는 신중하게 해석되어야 할 것이며, 향후 연구는 변화한 미디어 사용 행태를 반영한 연구 모형 설계와 설문 문항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위험의 사회적 증폭 프레임(SARF)과 위험 정보 추구 및 처리 모델(RISP: Griffin, Beltrán, Lockwood, & Barker, 2002)에서 이슈의 특징이 위험 인식 형성과 예방행

동 의도 형성에 중요함을 제시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신종플루와 같은 신종 감염병 이슈의 특징에 어떤 것들이 고려될 수 있는지 분석하지 못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신종 감염병 이슈의 특징이 함께 고려될 수 있는 변인들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참 고 문 헌

- 강두선·손기환(2014). 스마트폰 사용자의 인지적, 감정적, 행동적 반응 과정에 대한 OSROR 분석. *소비문화연구*, 17권, 155~179.
- 김선호·김위근(2017). *디지털 뉴스 리포트 2017: 한국*. 한국언론진흥재단.
- 김여라(2010). 신종플루 뉴스 이용 정도가 개인 및 공중에 대한 건강보호 행위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보호동기 이론을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51호, 5~25.
- 김영욱(2014). *위험 커뮤니케이션*.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김옥태·김규찬(2010). 언론의 신종플루 보도가 대학생 예방위생 행동에 미치는 영향: 제3자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4권 6호, 344~367.
- 김은이(2013). 온라인과 SNS 사용이 정치참여에 미치는 효과: 대인 간 대화와 정치 효능감을 매개 변수로. *정치커뮤니케이션 연구*, 31권, 31~62.
- 백혜진(2018). 뉴미디어 유형이 위험 특성, 위험 인식, 예방 행동 의도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 조건적 과정 모형의 검증. *한국언론학보*, 62권 3호, 215~245.
- 심재철(2015). 메르스 재난보도: 일종오류와 이중오류 사이에서. *여기자*, 24호, 85~88.
- 심재철 외(1998). 미디어 이미지와 정보처리 전략에 따른 지식습득. *언론과 사회*, 20권, 44~71.
- 왕재선·이현정(2011). 과학기술인식의 다원성과 영향 요인: 유전자 변형 식품(Genetically Modified Food: GM Food)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을 중심으로. *정부학연구*, 17권 1호, 145~186.
- 유우현·정용국(2016). 매스미디어 노출과 메르스 예방행동 의도의 관계에서 대인커뮤니케이션의 역할: 면대면 및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의 매개 및 조절 효과. *한국방송학보*, 30권 4호, 121~151.
- 유명순(2010). 우리나라 보건의료 조직 연구의 현황과 과제. *보건행정학회지*, 20권 1호, 155~182.
- 이병관·오현정·신경아·고재영(2008). 행위단서로서의 미디어 캠페인이 인플루엔자 예방행동에 미치는 영향: 건강신념모델의 확장을 중심으로. *한국광고홍보학보*, 10권 4호, 108~138.
- 장정현(2014). *식품·의약품 관련 정보처리과정이 위험 인식과 예방행동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O-S-R-O-R 커뮤니케이션 효과 모델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대학원 박사 학위 논문.
- 장정현·심재철(2013). 지각된 위험과 자기효능감이 행동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조절하는 낙관적 편견의 간접효과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언론학보*, 57권 1호, 111~137.



- 주영기 · 유명순 (2010). 신문 · TV 뉴스의 신종 출몰형 질환 및 만성질환 보도 패턴 분석. *한국언론학보*, 54권 2호, 363~381.
- 주영기 · 유명순 (2016). *위험사회와 위험 인식*.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질병관리본부 (2018). 중증호흡기증후군 확진자 국내 유입 사례 발생.  
URL: <http://www.cdc.go.kr/CDC/notice/CdcKrIntro0201.jsp?menuIds=HOME006-MNU2804-MNU2937&cid=140611>
- 최운정 (2008). 대중 매체 이용이 사회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분석: 대인 간 커뮤니케이션 매개 모델 검증. *한국언론학보*, 52권 3호, 374~395.
- 한동섭 · 김형일 (2011). 위험과 커뮤니케이션: 원자력의 사회적 수용에 미치는 커뮤니케이션의 효과: 신뢰성, 효용인식, 위험 인식을 매개로. *한국위기관리논집*, 7권 2호, 1~22.
- Ajzen, I., & Fishbein, M. (1980). *Understanding attitudes and predicting social behaviour*.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Brossard, D., & Nisbet, M. C. (2007). Deference to scientific authority among a low information public: Understanding US opinion on agricultural biotechnology.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Opinion Research*, 19(1), 24~52.
- Browne, M. W., & Cudeck, R. (1993).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In K. A. Bollen & J. S. Long (Eds.), *Tes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pp. 136~162). Thousand Oaks, CA: Sage.
- Cappella, J. N., Price, V., & Nir, L. (2002). Argument repertoire as a reliable and valid measure of opinion quality: Electronic dialogue during campaign 2000. *Political Communication*, 19(1), 73~93.
- Chang, J.-H., Kim, S.-H., Kang, M.-H., Shim, J. C., & Ma, D. (2018). The gap in scientific knowledge and role of science communication in South Korea. *Public Understanding of Science*, 27(5), 578~593.
- Cho, J., et al. (2009). Campaigns, reflection, and deliberation: Advancing an O-S-R-O-R model of communication effects. *Communication Theory*, 19(1), 66~88.
- Eveland Jr, W. P. (2001). The cognitive mediation model of learning from the news: Evidence from nonelection, off-year election, and presidential election contexts. *Communication Research*, 28(5), 571~601.
- Eveland Jr, W. P. (2004). The effect of political discussion in producing informed citizens: The roles of information, motivation, and elaboration. *Political Communication*, 21(2), 177~193.
- Eveland Jr, W. P., & Dunwoody, S. (2000). Examining information processing on the World Wide Web using think aloud protocols. *Media Psychology*, 2(3), 219~244.

- Eveland Jr, W. P., McLeod Jr, J. M., & Horowitz Jr, E. M. (1998). Communication and age in childhood political socialization: An interactive model of political development. *Journalism and Mass Communication Quarterly*, 75(4), 699~718.
- Fishbein, M., & Ajzen, I. (1975). *Belief, attitude, intention and behavior: An introduction to theory and research*. Reading, MA: Addison-Wesley.
- Flynn, J., Burns, W., Mertz, C. K., & Slovic, P. (1992). Trust as a determinant of opposition to a high-level radioactive waste repository: Analysis of a structural model. *Risk Analysis*, 12(3), 417~429.
- Griffin, S. O., Beltrán, E. D., Lockwood, S. A., & Barker, L. K. (2002). Esthetically objectionable fluorosis attributable to water fluoridation. *Community Dentistry and Oral Epidemiology*, 30(3), 199~209.
- Hu, L., & Bentler, P. M. (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6, 1~55.
- Janz, N. K., & Becker, M. H. (1984). The health belief model: A decade later. *Health Education & Behavior*, 11(1), 1~47.
- Kim, J., Wyatt, R. O., & Katz, E. (1999). News, talk, opinion, participation: The part played by conversation in deliberative democracy. *Political Communication*, 16(4), 361~385.
- Kim, D., et al. (2013). TopHat2: Accurate alignment of transcriptomes in the presence of insertions, deletions and gene fusions. *Genome Biology*, 14(4), R36.
- Kosicki, G. M., McLeod, J. M., & Amor, D. L. (1988). Processing strategies for mass media information: Selecting, integrating and making sense of political news. *Elections, Voting and Media Division of the Midwest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 Kosicki, G. M., & McLeod, J. M. (1990). Learning from political news: Effects of media images and information-processing strategies. In S. Kraus (Ed.), *Mass communication and political information processing* (pp. 69~83).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 Lee, C. J., Scheufele, D. A., & Lewenstein, B. V. (2005). Public attitudes toward emerging technologies: Examining the interactive effects of cognitions and affect on public attitudes toward nanotechnology. *Science Communication*, 27(2), 240~267.
- Markus, H., & Zajonc, R. B. (1985). The cognitive perspective in social psychology.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1, 137~230.
- Marcus, G. F. (2002). The modules behind the learning. *Developmental Science*, 5(2), 175~176.

- McLeod, J. M., Kosicki, G. M., & Pan, Z. (1991). On understanding and misunderstanding media effects. In J. Curran & M. Gurevitch (Eds.), *Mass media and society* (pp. 235~266). London: Edward Arnold.
- McLeod, J. et al. (2001, August). Reflecting and connecting: Testing a communication mediation model of civic participation. In *annual meeting of the Association for Education in Journalism and Mass Communication, Washington, DC*.
- Mutz, D. C. (2006). *Hearing the other side: Deliberative versus participatory democracy*.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Oh, S. H., Paek, H. J., & Hove, T. (2015). Cognitive and emotional dimensions of perceived risk characteristics, genre-specific media effects, and risk perceptions: The case of H1N1 influenza in South Korea. *Asian Journal of Communication*, 25(1), 14~32.
- Scheufele, D. A., & Lewenstein, B. V. (2005). The public and nanotechnology: How citizens make sense of emerging technologies. *Journal of Nanoparticle Research*, 7(6), 659~667.
- Shah, D. V., Cho, J., Eveland Jr, W. P., & Kwak, N. (2005). Information and expression in a digital age: Modeling Internet effects on civic participation. *Communication Research*, 32(5), 531~565.
- Shah, D. V., et al. (2007). Campaign ads, online messaging, and participation: Extending the communication mediation model. *Journal of Communication*, 57(4), 676~703.
- Slovic, P. (1987). Perception of risk. *Science*, 230, 280~285.
- Slovic, P. (1999). Trust, emotion, sex, politics, and science: Surveying the risk-assessment battlefield. *Risk analysis*, 19(4), 689~701.
- Slovic, P., Finucane, M. L., Peters, E., & MacGregor, D. G. (2004). Risk as analysis and risk as feelings: Some thoughts about affect, reason, risk, and rationality. *Risk analysis*, 24(2), 311~322.
- Slovic, P., Peters, E., Finucane, M. L., & MacGregor, D. G. (2005). Affect, risk, and decision making. *Health psychology*, 24(4S), S35.
- Slovic, P., & Peters, E. (2006). Risk perception and affect.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15(6), 322~325.
- Slovic, P. (2007). If I look at the mass I will never act: Psychic numbing and genocide. *Judgment and Decision Making*, 2, 79~95
- Sotirovic, M. (2001). Affective and cognitive processes as mediators of media influences on crime-policy preferences. *Mass Communication and Society*, 4(3), 311~329.

- Sundar, S. S., & Nass, C. (2001). Conceptualizing sources in online news. *Journal of Communication*, 51(1), 52~72.
- Yang, L. (2015). Splicing noncoding RNAs from the inside out. *Wiley Interdisciplinary Reviews: RNA*, 6(6), 651~660.
- Zhu, J. (1992). Issue competition and attention distraction: A zero-sum theory of agenda setting. *Journalism Quarterly*, 69(4), 825~836.

최초투고일: 2018년 10월 19일 • 심사일: 2018년 11월 13일 • 게재확정일: 2018년 11월 27일

# The Effects of Media Use on Risk Perceptions and Preventive Behavioral Intentions of an Emerging Infectious Disease

## Focused on the Mediated Effects of Information Processing

### **Kim, Hwalbin**

Research Professor, Health & New Media Research Institute, Hallym University\*

### **Oh, Hyun Jung**

Assistant Professor, Dept. of Health & Strategic Communication, CHA University

### **Hong, Da Ye**

BA Student, Dept. of Health & Strategic Communication, CHA University

### **Shim, Jae Chul**

Professor, School of Media & Communication, Korea University

### **Chang, Jeongheon JC**

Associate Professor, Dept. of Health & Strategic Communication, CHA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how individual media use and information processing can have an influence on risk perceptions and preventive behavioral intentions of an emerging infectious disease. Previous studies have shown that the general public forms its preventive behavioral intention through the route of "media use (mass media and the Internet) → information processing (reflective reasoning) → orientation (risk perception) → response (preventive behavioral intention)." Drawn on the O<sub>1</sub>-S-R-O<sub>2</sub>-R Communication Mediation Model, we explored the case of H1N1 Influenza. Data for this study were collected as a part of the KFDA's project in 2011 (N = 1,001). The findings revealed that the associations between media use and preventive behavioral intentions were significantly mediated by information processing and risk perceptions. Respondents who were more frequently gaining information from mass media and the Internet tended to perceive greater risks and increase preventive

---

\* First Author: ku95bini@gmail.com

\*\*\* Corresponding Author: jchang@cha.ac.kr

behavioral intentions through their information processing. This study contributes to risk and health communication literature by empirically investigating the O<sub>1</sub>-S-R-O<sub>2</sub>-R Communication Mediation Model with one of major health topics. In addition, the findings can provide useful and practical information for health practitioners during the health crisis.

**KEY WORDS** O<sub>1</sub>-S-R-O<sub>2</sub>-R • information processing • infectious disease • risk perception • preventive behavioral intention